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97호 【루계 제24710호】 주체103(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478련합부대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478련합부대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오일정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부장인 륙군대장 현영철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륙군대장 리영길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겸 작전국장인 륙군대장 변인선동지가 맞이하였다.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 사단장, 려단장, 각급 군사학교의 교원들이 훈련을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밝혀주신 공격과 방어에 관한 군사전략전술사상으로 부대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해 진행된 훈련은 기계화타격집단들이 각 병종, 전문병구분대들과의 긴밀한 협동밑에 적지역의 여러 방어계선들을 신속히 장악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판정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의 공병구분대들이 설비한 각종 차단물들을 극복하고 기계화구분대들이 진출할 통로를 개방하기 위해 먼저 조선인민군 제478련합부대의 경보병구분대 전투원들이 과감한 습격으로 방어계선들을 순식간에 장악하였으며 이어 전진보장구분대들이 각종 차단물들을 격파하기 위한 전투행동을 진행하였다.

기계화구분대들의 진출을 불허하기 위해 날아들던 《직승기》들이 휴대용고사로케트의 명중사격에 산산이 부서졌으며 조선인민군 제478련합부대의 각종 자행포들이 일제사격으로 대상물들을 타격하였다.

요란한 폭음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포탄들이 목표구역을 통쾌하게 명중시키는것을 보시고 포를 정말 잘 쏘오, 정확히 들어맞소라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이 끝난 다음 오늘훈련의 우결함을 평가, 지적하시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훈련이 당의 군사전략적방침관철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쌍방실동훈련을 진행하면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머리를 많이 쓰게 되는것만큼 앞으로 인민군대에서 이런 훈련을 자주 조직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싸움은 계획대로만 진행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정황이 조성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를 철저히 없애고 최첨단군사과학기술이 도입되고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기 위하여 지휘관들, 특히 훈련일군들이 훈련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실무능력을 부단히 높이기 위해 사색하고 탐구하는 문제,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않고 훈련을 실전맛이 나게 하는 문제, 군종, 병종, 전문병들사이의 협동동작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훈련방식에 따라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478련합부대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관건적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원동발전상이 선물을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원동발전상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 원동발전상이 23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90호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고산과수농장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김정일청년영예상,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고산과수농장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있는 대규모과일생산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고산과수농장을 세계적인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철령아래에 아름다운 사회주의선경, 인민의 리상향을 펼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으신 뜻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고산과수농장을 로동당시대의 희한한 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고산과수농장건설에서 커다란 로력적위훈을 세운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정일청년영예상,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로력영웅칭호	1명	리금철 전력공업성려단 자강도대대 대원		국기훈장 제2급	420명
안흥학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 정치지도원		김명일 남포시려단 와우도구역대대 대원		국기훈장 제3급	821명
김정일청년영예상	4명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	4명	군공메달	33명
김현철 평안남도려단 초급청년동맹위원회 위원장		국기훈장 제1급	45명	공로메달	1 362명
한금석 황해북도려단 종합참모		로력훈장	38명	계	2 728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각하서거 3돐 타이회고위원회가 13일 라자바트 프라나콘종합대학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쏭치트 풀랍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여러가지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령도자회고 나이제리아전국위원회가 14일 아부쟈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인 나이제리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루가, 부위원장으로 전 국회하원 의장 아군와 아나에크웨가, 서기장으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알하싼 맴맨 무함마드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널리 소개선전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대원수님회고 베닌사회주의당위원회 결성식이 14일 꼬또누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으로 알리 후두와 아그바훈죠 쥬스땡이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 에스빠냐위원회가 17일 마드리드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국제관계비서 아스토 가르씨아가, 부위원장으로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회고모임, 업적토론회, 사진전시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수단민족대회당 총대회에 축전을 보내였다

하르툼

수단민족대회당 총대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수단민족대회당 총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대회를 통하여 귀 당의 전체 당원들에게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귀 당을 더욱 강화하며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민족적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귀 대회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3(2014)년 10월 23일 평 양

혁명렬사 오백룡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앙보고회 진행

혁명렬사 오백룡동지 생일 10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2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모형이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들이 보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보고회에는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리용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정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소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렬사유가족들, 평양시내 기관, 기업소, 공장일군들, 공로자, 로력혁신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현영철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회는 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본받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보고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쟈까르따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죠꼬 위도도각하

나는 당신이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고있는 전통적이며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10월 21일 평 양

어느 한 발전소를 찾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공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어느해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의 한 발전소를 찾으시였다.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된 발전소를 돌아보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환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확실히 자강도에 오면 기분이 아주 좋다고, 오면서 보니 마을도 잘 꾸렸으며 도로도 잘 닦아놓았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일군들은 기쁨을 금치 못했다.

나라의 전력생산을 위하여 그토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장군님의 뜻이 현실로 꽃펴나게 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에 다소나마 보답했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마음을 마냥 즐겁게 했다. 하지만 안도감은 때이른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배전반실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전기생산정형을 표시하는 각종 계기들을 주의깊게 살피시며 배전반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기를 이렇게 팡팡 생산하는데 주파수가 떨어지는것이 문제이라고, 전기주파수가 보장되지 않으니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품의 질이 떨어지고있다고 걱정어린 어조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은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방직공장같은데서 전기주파수가 떨어지면 천을 제대로 짜지 못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발전기의 회전수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전기주파수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그래야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안전하게 할수 있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기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당면하게는 전력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잘 맞추는것이 중요하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일군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땅을 찾으시여 중소형발전소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해주시더니 오늘은 전력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도에 오신 첫걸음으로 발전소부터 찾으신 장군님,

그이의 말씀을 새기며 일군들은 절감했다.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약해야 한다는것을.

본사기자 김철혁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 뜨겁게 전하는 옥련산밀영의 돌강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대동강기슭에 일떠선 희한한 빙상체육기지인 인민야외빙상장,

이름부터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는 이곳에서 기쁨과 랑만, 행복과 희망을 은반우에 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볼데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높은 목표와 리상을 가지고 투쟁하며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쌓이고쌓여 그리도 빛을 뿌리는것인가.

눈부신 은반이 한눈에 안겨드는 빙상장은 류경원에서와는 전혀 다른 겨울풍경을 사람들에게 펼쳐보인다.

너무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 이곳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어린 처녀안내원과 보급원들이 하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한해 치고 제일 더운 때라고 하는 삼복철의 그날 이곳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무릎을 굽히시고 손으로 얼음판을 만져보시면서 삼복더위에 얼음을 얼구어 야외에서 스케트를 탄다는것이 참 희한한 일이라고, 정말 잘했다고 만족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너무도 기쁘시여 호탕하게 웃으시였습니다.》

《준공을 앞둔 어느날에는 탈의실에서 빙상장으로 드나드는 통로에 고무깔판을 깔아야 스케트를 신고다니기 편리하다고 세세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때 우리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어린 아이들이 스케트를 타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우시여 저기 보이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표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습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정말 저도모르게 이 말이 터져나오는 인민야외빙상장이였다.

야외빙상장운영에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어느 한 나라에서는 천막을 치고 조립식으로 된 랭동설비를 설치한 다음 한때 운영하다가 리용률이 떨어지고 수입이 적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전개하여 설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있다고 한다. 순전히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볼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경치좋은 이곳에 인민야외빙상장이 일떠서 사시장철 인민들이 마음껏 리용할수 있게 되여있다.

제한된 몇몇 선수들이 아니라 철저히 인민들이 리용할 대중스케트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강조하시였다.

야외빙상장앞에 공지가 있다는것을 아시고는 로라스케트장을 꾸려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고 거기에 주로만 꾸릴것이 아니라 판로라스케트와 로라스케트를 타고 여러가지 유희를 하고 기교도 부릴수 있는 경사진 언덕과 장애물, 구조물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고 로라스케트장형성도안을 세련시켜주신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의 손길은 얼마나 따사로운것인가.

로라스케트장이 정말 명당자리에 꾸려졌다고 그토록 기뻐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라스케트장을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아마 소학교학생들은 로라스케트를 타는 정신에 학교에 가는것을 다 잊을것이라고 웃음속에 동심을 헤아려주기도 하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로라스케트장의 현판, 스케트주로, 기교장, 배수체계, 야간운영준비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평가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준공식을 한 다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안내원과 보급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런 사연을 들으며 로라스케트장까지 다 돌아보고난 사람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의 심정을 터놓았다.

《한지붕밑에 자리잡은 〈여름〉과 〈겨울〉, 이것은 그대로 사회주의대가정의 처마아래에서 흘러가는 우리의 사계절, 우리의 행복한 생활입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참 좋은 글이 인민야외빙상장에 있는것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펼치신 설계도따라 우리 원수님 꾸려가시는 내 나라가 제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들의 심정만이라고 하랴.

만복의 씨앗들이 행복의 열매로 무르익는 이 땅의 자랑찬 현실을 두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나라가 제일이라고.

본사기자 리금분

당정책은 만능의 백과전서

지금 우리 당은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으로 강성국가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세계를 향하여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억센 기상은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만능의 백과전서인 당정책을 자자구구 학습하고 당정책을 자로 하여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여야 모든 일이 당의 의도에 맞게 잘되여나갈수 있습니다.》

당정책은 우리 당과 인민의 조직적의사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이다. 우리 당정책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이 구현되여있고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집대성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고귀한 지침이 밝혀져있다.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로부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사상관점과 투쟁기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정책에는 백과전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있다.

당정책을 떠나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승리와 성과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정책을 모르면 옳고그른것을 가려볼수 없으며 맡겨진 혁명임무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심어주고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나갈수 있게 한다는 바로 여기에 우리 당정책의 위대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

당정책은 우리 혁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전투적기치이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이 길은 천만시련을 뚫고나가야 하는 간고한 길이며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복잡다단한 길이다. 이런 준엄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자면 옳바른 지침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당정책은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라침판이다. 우리 혁명이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오면서도 사소한 헛갈림이나 실패를 모르고 백승만을 떨쳐올수 있은것은 우리 당정책이 언제나 현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여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왔다. 주체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할데 대한 문제, 사상사업을 선행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당이 밝힌 로선과 정책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배심든든하여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게 하였으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최악의 시련도 강행돌파할수 있게 하였다. 혁명의 진로가 뚜렷이 명시된 당정책이 있었기에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력사가 펼쳐지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온 누리에 떨쳐지게 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우리 당이 제시하는 로선과 정책들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계속 혁명의지를 백배해주는 활력소로 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전략전술인 당정책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할 때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것이라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직한 철석같은 신념이다.

당정책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우리 당정책에는 난관극복의 묘술이 있고 기적창조의 비결이 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정책적과업들을 틀어쥐고나갈 때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것을 오늘의 현실이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천지윤활유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콤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수자화된 공장이다. 이 공장에서는 모든 윤활제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생산하고있을뿐아니라 몇개 나라에서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첨단제품들도 내놓고있다. 종업원 일인당 록지면적이 세계적기준을 훨씬 릉가하는 공장은 말그대로 공원이다. 성과의 비결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공장일군들은 《당에서 하라는대로, 당정책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고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사업과 생활, 창조와 건설의 유일한 지침은 바로 우리 당정책이다. 당정책에 정통하면 무슨 일에서나 막히는데가 없고 모를것이 없으며 모든 사업을 당의 의도대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자기 단위에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정책에 대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관점과 립장에 달려있다. 우리는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만사가 풀리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이 일어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 당정책에 립각하여 사업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야 한다.

당정책관철에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이 있고 백두산대국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만능의 백과전서인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철학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중앙보고회에서 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현영철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세찬 열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렬사 오백룡동지의 생일 100돐을 기념하고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체형의 참된 혁명가인 오백룡동지의 생애와 투쟁업적을 돌이켜보며 투사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영웅적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새겨안게 됩니다.

오백룡동지의 혁명적생애는 우리 당이 헤쳐온 영광스러운 선군혁명의 길, 우리 혁명이 아로새긴 긍지높은 수령결사옹위의 력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참다운 충신의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주체3(1914)년 10월 24일 당시 함경북도 회령군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망국노의 설음과 고통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오백룡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슬하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자라나 조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오백룡동지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당, 건국, 건군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군련합부대 지휘관으로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에 따라 인민군부대들을 원쑤격멸에로 능숙하게 조직지휘하여 자랑찬 전승을 안아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전후시기부터 여러 혁명발전단계들에 오백룡동지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수행하면서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고 군력강화와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웠습니다.

50여년동안 혁명의 군복을 입고 선군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어온 오백룡동지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핵을 이룬것은 혁명의 수뇌부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이였습니다.

오백룡동지의 혁명적인 삶은 수령옹위는 전사의 생명이며 바로 여기에 인간이 지닐수 있는 최고의 인격이 있고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 있다는 철리를 뜨겁게 새겨주고있습니다.

오백룡동지가 목숨보다 귀중히 간직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실지체험을 통하여 수령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이고 미래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한데 기초하여 신념과 의지, 량심과 도덕으로 굳어지고 삶의 요구로 체질화, 생활화된것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밑에 일찌기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활동하다가 일제의 《토벌》에 아버지와 형을 한날한시에 잃고 비분에 가슴을 치며 유격대에 입대한 오백룡동지는 주체22(1933)년 2월 그토록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낫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그에게 《오백룡》이라는 이름석자부터 시작하여 우리 글과 구구표, 명사격술을 손수 배워주시며 어엿한 혁명가로 성장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좌경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오백룡동지가 속한 중대전원이 《민생단》혐의를 받고있을 때에는 몸소 중대에 내려가 20일나마 계시면서 대원들의 얼어든 가슴을 녹여주시고 중대를 모범중대로 만드시여 억울한 루명을 벗겨주시였습니다.

그 나날 오백룡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도탄에 빠진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실 민족의 태양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오백룡동지는 언제나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제일선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과 권위를 굳건히 지켜드린 충직한 혁명가였습니다.

오백룡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안녕을 지켜드리는것은 곧 조선혁명의 심장을 보위하는것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잠을 자도 사령관동지의 곁에서 기관총을 안고 잤으며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하던 주체28(1939)년 2월 오백룡동지가 인솔하는 경위중대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장백현의 어느 한 수림지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중대앞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를 노리고 갑자기 앞뒤로 달려드는 수천명의 대적과 싸우며 사령부를 호위해야 할 위급한 정황이 조성되였습니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에 오백룡동지는 천백번 죽어 한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사령관동지를 보위해야 한다는 각오밑에 기관총을 틀어잡고 중대를 은밀히 기동시켜 불의적인 돌격과 맹타격으로 적들을 쓸어눕히고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였습니다.

동녕현성전투와 소왕청유격구방위전투, 로흑산전투와 보천보전투, 무산지구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마다에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지켜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고 용감히 싸운 오백룡동지의 영웅적위훈이 새겨져있습니다.

오백룡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투철한 수령옹위투사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말살하려고 비렬하게 책동하던 시기에 오백룡동지는 수령옹위의 제일선에서 총대로 당과 수령의 절대적권위를 결사옹위하였습니다.

1960년대에도 오백룡동지는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과 《일당백》구호관철을 방해하는 이색적인 요소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오백룡동지는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완벽하게 관철한 혁명전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은 오백룡동지의 사상정신적특질이였습니다.

주체29(1940)년 가을 사령관동지로부터 800여섬의 식량을 마련할데 대한 명령을 받은 오백룡동지는 부대를 이끌고 적 《토벌대》의 추격과 포위를 피해가며 임무를 수행하던중 그만 열병을 만나 중태에 빠지게 되였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전류에 감전된것처럼 저리고 떨려 지탱할수 없는 속에서도 오백룡동지는 죽어도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고 죽어야 한다는 필사의 의지를 안고 기여다니면서까지 식량공작전투를 지휘하였으며 800여섬의 식량을 장만하고 사령부에 보고를 올리고서야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오백룡동지를 굳게 믿으시고 해방후에는 혼란된 철도운행을 바로잡을데 대한 과업도 주시고 각이한 년대들에 수산상, 륙운 및 해운상,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부문의 사업들을 맡겨주시였습니다.

경제와 기술을 배운적도 없고 생산과 건설을 지도해본 경험도 없는 오백룡동지에게 있어서 행정경제사업은 생소하고 어려운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과업들을 최대의 믿음으로 받아안군한 오백룡동지는 수령님께서 간석지건설을 총책임지고 지휘할 전권대표로 내세워주시였을 때에도 간석지에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을 온갖 충정을 다하여 모시였습니다.

오백룡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신변호위와 건강보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없는것도 만들어내고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기어이 해냈습니다.

주체48(1959)년 1월 오백룡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어버이수령님께서 외국방문시에 리용하실 비행기의 좌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조할데 대한 특별과업을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부족한것도 많고 생소한것도 적지 않았지만 오백룡동지는 과업을 받은 그날부터 현장에 틀고앉아 개조작업을 마지막까지 지휘하여 며칠사이에 훌륭히 끝내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백두산천지처럼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온 오백룡동지는 장군님께서 직접 주시는 과업뿐아니라 장군님께서 심중에 두고계시는 문제까지도 자신이 맡아 풀어드려야 할 일로 여기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에서 감을 재배할수 없는것이 유감이라고 조용히 말씀하신적이 있었는데 오백룡동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 집뜰안에 안변군 천삼마을의 감나무들을 가져다심었으며 몇해동안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끝내 풍토순화시켜 장군님께 알알이 익은 감들을 정히 올렸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한없이 진실하고 순결무구한 마음으로 받든 오백룡동지의 숭고한 모범은 오늘 천만군민이 주체혁명의 새시대에 우리 당을 어떤 자세와 립장으로 받들어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습니다.

오백룡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고매한 혁명가적풍모와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한 참다운 지휘성원이였습니다.

백두의 초연냄새와 총기름냄새가 펑생 몸에서 빠질줄 몰랐던 오백룡동지는 대련합부대장으로 일할 때에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으로 사업할 때에도 늘 인민군군인들과 군중속에 들어가 솔선 이신작칙하면서 걸린 문제를 푸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겼습니다.

1970년대의 어느해 가을 황해북도에 내려간 오백룡동지는 포장용기가 모자라 낟알털기가 늦어진다는것을 알게 되자 자신부터 가마니를 짜는데 쓸 새끼를 꼬면서 걸린 문제를 풀었고 해주항건설을 맡았을 때에는 건설자들과 시민들을 불러일으켜 어렵다던 공사를 불과 몇달사이에 끝내였습니다.

오백룡동지는 지도사업을 하러 나가서도 아래일군들이 남다른 침식조건을 마련해주려고 하면 그때마다 나는 대우나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며 전사들이 먹는 식사, 로동자들이 자는 잠자리면 만족하다고 이야기하군 하였습니다.

그 어떤 특전특혜도 바람이 없이 언제나 소박하고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며 혁명사업에 투신한것으로 하여 오백룡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백룡동지의 생이 값높이 빛날수 있은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고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에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백마에 대하여 쓰시면서 오백룡동지가 말먹이를 로획해가지고 돌아와 자기가 살아있는 한 백마를 어데도 보낼수 없다고 한 이야기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후세에 전해주신것은 오백룡동지의 충직성에 대한 고귀한 평가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백룡동지를 충신중의 충신으로 믿어주시면서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감탕길을 앞장서 헤치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오백룡동지가 조건타발을 하며 우는소리를 앞세우는 일군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를 더 공부하라고, 그러면 혁명이 진짜 무엇인지 알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혁명이란 바로 난관을 극복해나가는 투쟁이라고 절절하게 한 그 말에는 수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인생의 락이 있다는 투사의 혁명관, 인생관이 함축되여있습니다.

참으로 오백룡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이 창조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전통은 우리 혁명의 더없이 고귀한 재부이며 이 빛나는 정신적유산이 세기를 이어 계승되여온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오백룡동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우리 혁명의 령도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는데 열화같은 충정을 바친 혁명의 원로였습니다.

일찌기 항일의 혈전장에서 백두광명성탄생이 안아온 민족의 대통운을 맞이하였던 오백룡동지는 문무재덕을 겸비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드는 길에 대를 이어 무궁번영할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력사적인 고난의 행군을 앞둔 시기에는 그를 경위중대장으로 임명해주시고 오중흡동지가 희생된 후에는 사령부 경위련대라고도 할수 있는 7련대장의 중책을 맡겨주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가 전례없이 복잡할 때에는 인민무력기관의 중요직책들을 련이어 맡겨주시였으며 인생의 말년에까지도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사업을 맡아하도록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였습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백룡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위한 사업을 자그마한 드팀도 없이 보장하는 믿음성있는 일군이라고 치하해주시고 그를 원형으로 예술영화를 만들어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을 교양하도록 하시였으며 투사의 후손들이 충정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혁명렬사 오백룡동지는 수령옹위의 전위투사로 영생하고있으며 그의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은 선군혁명승리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이 고귀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는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사는 우리모두의 혁명적량심이며 의리입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온 나라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며 누구나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이 헤쳐온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인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로 빛나는 우리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혁명적본태를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고 투쟁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구들에서 조선속도, 새로운 대고조력사를 창조함으로써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나는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회령혁명사적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회령혁명사적관창립 40돐 기념보고회가 23일에 진행되였다.

전승훈 함경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사적관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회령혁명사적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창립 40돐을 맞는 회령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축하문은 회령혁명사적관이 주체63(1974)년 10월 24일에 창립된 후 지난 40년동안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자랑스러운 연혁을 새겨오면서 인민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적관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어머님의 혁명활동을 폭넓게 보여줄수 있도록 학술배렬과 자료전시를 새롭게 하고 진렬체계와 형식을 개선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회령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신 사적내용을 보여주는 호실과 구호문헌보존교양실을 잘 꾸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심어줄수 있게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고 강의를 실감있게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마식령스키장건설장과 세포등판개간전투장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과 여러 단위들에 나가 이동강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대중을 기적과 위훈에로 고무추동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고향집과 오산덕, 망양나루터를 비롯한 혁명사적지들을 력사주의원칙에서 원상대로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였으며 선진적인 보존수단과 방법들을 연구도입하여 혁명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갖추어놓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회령혁명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숭고한 충정을 지니고 당이 맡겨준 초소를 굳건히 지키며 주체의 혁명전통의 옹호자, 선전자로서의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사적관관장 리순실의 보고에 이어 과장 정신희, 실장 조창준, 부원 손경숙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중앙을 결사옹위하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사업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적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사상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사적지들과 사적물들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을 잘하여 선군조선의 국보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조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사적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백두의 혈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타는 충정, 고상한 풍모

각지의 당일군양성기관과 대학학생들속에서 불붙은 건물들과 위험한 사고현장에 서슴없이 뛰여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구원하는 소행들이 발휘되여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에서 자라난 혁명전사들이 자기를 키워준 수령을 잘 받들어모시는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각지 대학생들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충정을 바치는 소행이 발휘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콤퓨터과학대학 2학년 학생 오명혁은 지난 9월 대성구역 룡북동의 어느 한 인민반의 세대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가정들에 뛰여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그는 가스에 질식되여 의식을 잃은 3명의 녀성을 업어내오는 과정에 자신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이 모셔져있는 대학휘장을 손에 정히 쥐고있어 사람들을 감동시키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학부 4학년 학생 리진혁은 지난 4월 어느 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길속을 뚫고들어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상을 모신 미술작품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건물의 야외정면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이 과정에 그는 머리를 심하게 다치였으나 마지막까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금속공학부 2학년 학생 유대봉은 지난 7월 력포구역 대현동의 어느 한 인민반의 주민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한것을 발견하고 불속에 들어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집에서 운신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할머니를 구원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평성의학대학 고려의학부 3학년 학생 리철민을 비롯한 8명의 학생들은 지난 6월 숙천군 열두삼천농장에서 모내기를 지원하던중 10작업반 농업근로자들의 살림집들에 화재가 발생하자 서슴없이 뛰여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한 농업근로자의 자식까지 구원하였다.

사리원지질대학 지질공학부 3학년 학생 송광철을 비롯한 4명의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사리원시 구룡협동농장 남새 2작업반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과 창고, 탈곡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붙는 선전실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왔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하였던 1t의 벼종자를 비롯한 많은 종자와 영농자재를 구원해내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평양미술대학 공예학부 3학년 학생 정준은 지난 4월 어느 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길속을 뚫고들어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고 건물의 야외정면에 모신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보위하기 위해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이였다.

이밖에도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 신의주농업대학, 신의주제2사범대학,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강계의학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 함흥농업대학, 남포사범대학, 중앙체육학원, 평양연극영화대학의 학생들속에서 불붙는 건물들과 살림집들에 뛰여들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오는 소행이 발휘되였다.

각지 당일군양성기관과 대학학생들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현장에 뛰여들어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원하는 미풍이 발휘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재정대학 1학년 학생 리명철은 지난 9월 대성구역 룡북동의 어느 한 아빠트에서 화재가 발생한것을 발견한 즉시 주민세대의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통 2개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여 큰 폭발위험을 제거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공학부 4학년 학생 김충렬은 지난 2월 대동강유보도에서 공부하던중 초급중학교학생이 얼음구멍에 빠진것을 발견하고 서슴없이 뛰여들어 구원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평안남도당학교 2학년 학생들인 박영명과 김영운은 지난 7월 도안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하던중 2명의 소학교학생이 대동강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것을 발견하자 지체없이 뛰여들어 구원한 다음 정신을 잃은 그들을 인공호흡을 시켜 소생시키였다.

사리원공업대학 전기공학부 3학년 학생 백성국은 지난 2월 한 주민이 사리원시 운하2동의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우물을 청소하기 위해 그안에 들어갔다가 무너지는 돌에 깔리웠다는것을 알고 8시간동안 10m깊이의 우물안을 오르내리면서 애써 노력하여 주민을 구원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강원도당학교 학생 강금철은 지난 9월 원산시 중청동가까이의 철길에서 놀고있던 5살 난 어린이가 렬차의 기적소리에 놀라 어쩔줄을 몰라하며 철길에 엎드려있는것을 발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주오는 렬차를 향해 달려가 어린이를 구원하였다.

청진광산금속대학 광업기계공학부 3학년 학생 리금석은 지난 7월 청진청년공원 앞바다에서 해수욕을 하던 5명의 녀성들이 파도에 의해 수백m 밀려나간것을 발견하고 즉시 바다에 뛰여들어 2시간동안 힘겨운 전투를 벌린 끝에 그들을 구원하였다.

청진의학대학 제2의학부 2학년 학생들인 리충성과 송남일은 지난 6월 청암구역 마전동가까이에 있는 철다리에서 4명의 어린이들이 렬차가 가까이 오고있는것도 모르고 놀고있는것을 발견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3명의 어린이를 먼저 대피시키였다. 리충성은 철다리의 중간부분에서 어쩔줄 몰라하는 어린이를 안고 4m높이의 철다리에서 뛰여내리는 과정에 팔이 골절되였으나 어린이에게는 자그마한 타격도 가해지지 않도록 구원해내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함흥사범대학 체육예능학부 4학년 학생 김은화는 지난 8월 마전유원지의 해수욕장에서 고급중학교학생이 해수욕을 하던중 갑자기 일어난 세찬 파도에 의하여 바다쪽으로 밀려나가는것을 발견하고 서슴없이 뛰여들어 그를 구원하였다.

이밖에도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사리원지질대학, 평성사범대학, 리계순사리원제1사범대학, 조군실원산공업대학 학생들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일군양성기관과 각지 대학들의 학생들의 뜨거운 충정과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현경철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동창군체신소 우편통신원 백옥보동무의 소행에 대한 각계의 반향

참인간의 모습을 가슴마다에 간직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창군체신소의 평범한 우편통신원인 백옥보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각지 일군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 과장 권호남동무는 40여년간을 당출판물과 우편물배포사업에 묵묵히 바쳐온 백옥보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감동없이는 읽을수 없고 눈물없이는 새길수 없는 가슴뜨거운 사실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자기의 친자식들을 돌보기도 힘에 부치던 고난의 시기 부모잃은 아이들까지 맡아안아 키웠다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그의 결곡한 마음을 잘 알수 있다.

590여개의 우편함들을 만들어 담당구역의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제 집재산처럼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는 백옥보동무의 목소리에서도, 우편물을 배포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어느 농장의 밭머리에 돋아난 김을 매주던 그의 모습에서도 참인간의 진심을 엿볼수 있다.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의 량심과 헌신의 땀으로 빛내이려는 참된 인생관을 지닌 백옥보동무였기에 누구나 쉽게 걸을수 없는 기나긴 로정을 변함없이 이어올수 있었을것이다. 이런 인간이야말로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다운 구현자, 진짜배기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이 말의 참의미를 자기 한생의 성실한 자욱자욱으로 새기여준 백옥보동무! 그는 오랜 세월 땅속깊이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백옥과도 같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남모르게 이바지한 우리 시대의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수십년세월 산골군의 우편통신원으로 묵묵히 일해오면서 나라에 보탬을 주는 수많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한 백옥보동무의 한생은 사람의 인격이 결코 어떤 일을 하는가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생동하게 가르치고있다.

수천수만의 심장마다에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백옥보동무처럼 공업의 식량인 석탄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하는 사업에 나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선봉투사로 삶을 빛내이겠다.

장강군당위원회 지도원 서은희동무는 백옥보동무의 소행자료를 담은 기사를 보고 정말 느끼는바가 크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총들고 싸우는것 못지 않게 중요한 일도 있단다.》

백옥보동무를 소개한 기사의 한 대목에 있는 이 글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남들처럼 앞가슴에 번쩍이는 훈장은 없어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당의 사상과 뜻을 대중의 심장속에 전해주는 남다른 긍지와 보람을 안고 산 백옥보동무의 아버지는 훌륭한 혁명의 전세대이다. 참다운 아버지의 인생길을 대를 이어 빛내여온 백옥보동무의 40여년간은 당사상전선의 전초선에 선 새 세대로서의 자신의 사명감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과연 우리는 혁명의 전세대들이 물려준 고귀한 투쟁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있는가.

자기자신부터가 당보의 기사내용들을 자자구구 학습하면서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가 되여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고무추동한 백옥보동무의 실천적모범도 우리가 따라배워야 할 풍모라고 생각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하며 천만군민이 일떠선것만큼 혁명이 전진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백옥보동무가 우편통신원으로서 걸은 길은 131만4000여리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한 우편통신원이 걸은 길만을 생각할수 없다. 이 길과 함께 이어진 수천수만의 당정책옹위자, 관철자들의 충정의 길을 그려보며 그것으로 하여 더욱 광활하게 열려진 조국번영의 대통로를 눈앞에 바라본다.

백옥보동무의 투쟁이야기를 한가슴에 새길수록 명실공히 당사상전선의 제일선에 선 사상전의 기수, 전초병답게 일해나갈 자각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된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보건성돌격대 대장 김동건동무는 백옥보동무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잊을수 없는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화폭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백옥보동무가 군안의 10여명 전쟁로병들을 친딸의 심정으로 수십년간이나 지극히 돌보아준 이야기며 부모잃은 여러명의 아이들을 주저없이 맡아안아 친자식처럼 키운 이야기들은 그가 뜨거운 인간성, 인정미를 지닌 참인간임을 말해주고있다.

바로 이런 고결한 인간적바탕이 있었기에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안고 수십년간이나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올수 있은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이, 인민에 대한 지극한 헌신이 없이 어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말할수 있고 당과 수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론할수 있겠는가.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꾸어가시는 인민사랑의 대화원속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아름다운 인간향기를 그윽하게 풍기는 미담들은 수없이 늘어나고있으며 그 주인공들 누구나가 만사람의 존경과 축복을 받으며 시대의 본보기로 떠받들리고있는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현실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백옥보동무와 같이 미덕의 선구자로 살며 일해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새겨안고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여나가겠다.

장 정 철

우리의 량심을 조국앞에서 검증받으리

당보에 실린 기사 《평범한 인생길이 새겨주는 참된 삶의 진리》의 주인공인 동창군체신소 우편통신원 백옥보동무의 아름다운 소행은 각지 우편통신원들의 심장속에 지울수 없는 여운을 새겨주며 그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오직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있는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충실히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덕성군체신소 우편통신원 리영근은 백옥보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수십년동안 우리 당출판물과 우편물배포사업을 해온 백옥보동무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머리가 숙어진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우편통신길을 멈추는것을 자기 가정의 친혈육이 되여준 어머니당 조직을 저버리는것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미래까지 맡아안아준 조국앞에 죄를 짓는것으로 여기고 모진 고통도 참아가며 묵묵히 우편통신의 길에 나서는 그의 모습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은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이어져야 한다는것을 말없이 새겨주고있다.

나도 우편통신원으로서 그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거울로 삼고 하루하루를 값있게 살아가겠다.

백옥보동무처럼 살며 투쟁하고있는가라는 량심의 물음앞에 자신을 늘 세워보며 우편통신길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겠다.

은산군체신소 우편통신원 윤성범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모셔진 신문을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 억수로 쏟아지는 비발속에서 집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온몸을 적시며 기다린 백옥보동무, 담당한 지역의 집들에 우편함을 만들어준 그의 소행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을 고결한 량심으로 체질화한 참인간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보 한부한부를 자기의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며 그것이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기울여온 그의 피타는 노력은 우리 우편통신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의주군체신소 우편통신원 최경해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것을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간직한 백옥보동무이기에 참된 삶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사를 읽으면서 지난 기간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협동농장벌을 지나가면서 밭머리에 돋아난 풀을 백옥보동무처럼 공민적량심의 눈으로 보아왔던가?

대중으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참된 인간으로 삶을 빛내일수 있겠는가?

백옥보동무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도덕적의무를 다해나가겠다. 순결한 애국의 량심을 지니고 조국앞에 떳떳하게 살아나가겠다.

신 현 규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새기여가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맡은 혁명초소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백옥보동무의 인생길은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떤것인가를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덕탄광 2갱 갱장 림동찬은 백옥보동무에 대한 기사는 보면 볼수록 우리 탄부들에게 한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참된 삶의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한생을 길게도, 짧게도 산다. 하지만 그 생이 자기만을 위한 생이라면 그처럼 아름답지는 못할것이다.

백옥보동무는 지난 1970년대부터 오늘까지 40여년동안 우편통신원으로 일해왔다. 그가 행복한 나날에는 물론 시련의 나날에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변함없는 충정의 길을 걸어올수 있은것은 받아안은 사랑과 은덕을 심장깊이 새길줄 아는 참된 의리의 인간이였기때문이다.

한생을 백옥보동무처럼 빛나게 살겠다는것이 우리 탄부들모두의 심정이다. 언제나 우리 탄부들을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제강국건설의 전초병답게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빛내여나가겠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령대탄광 3갱 3중대장 김광철은 백옥보동무가 지닌 정신세계는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그가 우편통신원으로 일해온 나날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로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기여온 나날이다, 힘들어 지쳐 주저앉았다가도 백옥보동무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키시려 머나먼 전선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입술을 사려물고 다시 일어서군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걸음걸음 따라선 백옥보동무이기에 그는 명절날, 휴식날이 따로 없는 직업이건만 오히려 그것을 행복으로, 보람으로 여기였다, 백옥보동무가 밤마다 만든 590여개의 우편함은 그가 지닌 깨끗한 량심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순한 책임감이나 의무감만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다, 언제나 자기 령도자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마음도 숨결도 같이해나가는 백옥보동무처럼 생의 자욱자욱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수놓아가겠다고 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재일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3일 최일경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재일동포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원동발전상 경모의 정 표시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아 23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결사옹위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나라 대외경제상과 로씨야원동발전상 회담

조로정부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우리측 위원장인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로씨야측 위원장인 알렉싼드르 갈루슈까원동발전상의 회담이 23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주재덕 철도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로씨야원동발전상일행, 알렉싼드르 찌모닌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의 경제, 무역협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온 나라에 푸른 주단을 펼치기 위한 잔디연구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전력, 석탄증산을 위해 보건일군들도 떨쳐나섰다

활발히 벌어지는 현장의료활동

각지 의료일군들

전국각지의 의료일군들이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력, 석탄생산자들을 고무추동하는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의료일군들이 각지의 화력발전소들과 탄광들에 달려나가 생산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현장치료사업을 전투적으로 전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봉사사업을 잘하여야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킬수 있으며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보건성에서는 각 도 해당부문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전력, 석탄생산자들에 대한 현장의료봉사활동을 보다 책임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책임일군들부터가 앞장에 서서 현지를 밟으며 현장치료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들을 짜고들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평양산원, 보건성 구강종합병원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의료일군들은 전력생산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치료활동을 활발히 벌리였다.

동평양화력발전소에 선참으로 달려나가 치료초소를 기동성있게 전개한 김만유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발전소로동계급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며 현장에서 생산자들에 대한 검진 및 치료활동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이들은 치료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전력생산자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검진하는 한편 그들의 가족들도 성심성의껏 치료해주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병원에서는 현장에서 필요되는 의료기구들을 원만히 갖추어주고 부족되는 약물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을 면밀하게 세워주었다. 일군들은 열생산직장, 자동화직장의 생산자들이 검진받을 짬도 없이 바삐 뛰여다닌다는것을 알고는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의 일손도 도와주면서 적극 고무해주는 아름다운 소행도 발휘하였다.

이들의 지극한 소행은 전력생산자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각지의 의료일군들도 전력, 석탄생산단위들에 나가 화선군의의 심정으로 치료전투에 진입하였다. 생산현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들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나타날수 있는 질병들을 미리막기 위한 방역사업과 위생선전활동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책임성과 역할을 보다 높이고있다.

국장 김익수동무를 비롯한 평안남도의 해당 일군들은 탄광들이 많이 배치되여있는 지역적특성에 맞게 현장치료대원들이 구급 및 대중약품들과 의료기구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기 위한 협의회를 여러차례 진행하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탄광, 발전소들에 전개한 치료초소들을 순회하면서 부족되는 약물들을 제때에 공급해주기 위한 대책들을 책임적으로 세워나가고있다. 얼마전 많은 의약품을 싣고 직접 청천강화력발전소에 달려나간 도의 일군들은 전력생산자들을 적극 고무해주는 한편 의료일군들의 현장치료활동을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덕천지구의 의료일군들도 탄부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보약차들을 만들어 공급하고 기동성있게 치료활동을 벌림으로써 전투현장의 분위기를 더한층 고조시키고있다.

의료일군들은 검진하는 시간마저 아까와 탄전을 떠나지 못하고있는 탄부들을 위해 직접 막장에 내려가서 그들의 일손을 도우며 치료사업을 벌리고있다.

개천, 득장, 북창지구의 의료일군들도 탄부들에 대한 검진 및 치료사업을 성심성의껏 진행하고있다.

특히 득장지구의 의료일군들은 전화의 나날 화선군의들처럼 위생가방을 메고 치료활동을 전투적으로 진행하면서 생산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다. 의료일군들은 긴장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떨쳐나선 탄광로동계급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현장조건에 맞게 매일 여러가지 보약차를 만들어 공급하고있다.

발전소와 탄전들에서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의료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무한히 고무된 각지 로동계급은 높이 세운 증산계획을 기어이 돌파할 열의로 가슴들을 끓이고있다.

당의 전투적인 호소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고 떨쳐나선 전력, 석탄생산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정성과 열정을 바쳐가는 각지 의료일군들의 현장의료봉사활동은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조양탄광병원 의료일군들

조양탄광병원에서 화력탄생산에 적극 떨쳐나선 탄부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예방치료사업을 앞세우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입니다.》

지난 시기 이곳 탄광병원에서는 탄부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병을 미리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병원일군들인 림혜경, 리인철동무들을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은 갱별로 오랜 탄부들을 장악하고 명절을 계기로 많은 닭곰들을 마련하여 안겨주는 아름다운 소행도 발휘하였다.

뿐만아니라 몇해전부터는 집짐승들을 기르면서 산모들에게 닭알과 꿀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

9월에 들어와 화력탄생산을 위한 탄부들의 전투가 낮과 밤을 이으며 더욱 힘있게 벌어지자 이곳 병원일군들은 의사들과 마주앉아 치료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이 과정에 갱별로 치료대를 조직하는 한편 지구별로 탄부들의 가족들도 함께 치료해주자는 좋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병원에서는 곧 10여명의 의료일군들은 현장에 들어가 탄부들을 검진하고 치료하며 나머지 호담당의사들은 탄부가족들을 비롯한 호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현장치료대원들은 산기슭에 조성한 약초밭들과 약나무들에서 딴 열매들로 여러가지 보약차를 만들어 탄부들에게 공급하면서 한사람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였으며 예방대책들을 면밀하게 세워나갔다. 이와 함께 의료일군들은 탄부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현장에서 구강병을 치료하고 보철을 하는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병원일군들은 부족되는 의료기구들을 자체로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강하게 내밀었다.

활발히 진행되는 현장치료활동에 의하여 탄부들의 건강은 믿음직하게 보호되고있으며 의료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탄부들을 석탄증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탄광마을이 자랑하는 의료일군

탄부들과 주민들로부터 우리 의사선생님이라고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는 의료일군들가운데는 순천시 직동탄광병원 의사 김은심동무도 있다.

비록 년한은 길지 않지만 그는 뜨거운 정성과 높은 의술로 탄부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며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어느날 심한 출혈로 생명이 위험에 처한 채탄공의 안해가 이곳 병원으로 들어왔을 때였다. 병원에서는 즉시에 치료전투를 벌리였다.

환자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복도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김은심동무는 서둘러 자기 팔을 걷어올리였다.

탄부의 안해를 무조건 살려내려는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마음이 그대로 환자의 몸으로 흘러들었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을 받들어 새 세대 의료일군을 비롯한 병원의료일군들이 발휘한 헌신성은 마침내 기적을 안아왔다. 환자가 의식을 차린 후에도 김은심동무는 의료일군들과 함께 갖가지 보약들과 별식들을 안겨주면서 병이 완쾌되도록 뜨거운 정성을 기울이였다.

석탄증산으로 당을 받드는 탄부들의 애국의 발걸음에 자기의 보폭도 맞추며 그는 오늘도 의료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청 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병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의료일군들이 정성을 다하면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지난 9월 어느날이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병원으로는 뜻밖의 일로 심한 화상을 당한 한 기업소종업원의 안해가 긴급후송되여왔다. 즉시에 구급치료대책을 세운 이곳 의료일군들은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전신 30%에 2~3도화상으로서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여러 검사소견을 놓고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담당의사의 말에 의료일군들모두가 긴장해졌다. 일부 의료일군들은 상급병원으로 후송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표시하였다.

조기철, 리미화동무를 비롯한 병원일군들의 눈앞에는 발전기의 힘찬 동음과 더불어 전력증산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기업소로동계급의 미더운 모습이 밟혀왔다.

지난 시기 현장치료활동을 벌리는 나날에 이곳 의료일군들은 한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로동계급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투쟁모습에 눈시울을 적신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들은 바로 우리 의료일군들을 믿고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로 결사전을 벌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전력증산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로동자들이 가정일로 걱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병원자체의 힘으로 환자를 기어이 회복시키자는 병원책임일군의 호소는 의료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달구어주었다.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열정과 뜨거운 정성에 의해 환자의 상태는 개선되였다.

며칠이 지나 피부이식수술을 할것을 결심한 병원일군들은 이 사실을 련합기업소에는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피부이식수술을 하는 날 제일먼저 수술대에 오른 사람들은 병원책임일군들이였다. 이어 20여명이 수술대우에 올랐다. 그들속에는 의사, 간호원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일하는 로동자들도 있었다.

그후에도 의료일군들은 환자의 건강에 좋은 음식들과 보약들을 마련하여 안겨주며 그의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였다. 부모친척들과 멀리 떨어져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의료일군들은 의사이기 전에 친혈육이였다.

하기에 퇴원을 앞두고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며 나라의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할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본사기자

한 녀성의 생명을 지켜

본사기자

집단과 동지를 위해 바친 삶은 영원하다

동림식료공장 장작업반 당세포비서였던 김철훈동무

우리 사회에는 아름다운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많다.

동림식료공장 장작업반 당세포비서였던 김철훈동무에 대한 이야기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시대의 인간은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만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비서는 자기 집일보다 동지들과 군중속에서 제기되는 일들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자식들을 위하여서는 피와 살도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어머니처럼 집단을 위하여 심신을 다 바쳐야 합니다.》

김철훈동무는 29살의 당세포비서였다.

살아온 나이보다 누려야 할 삶이 더 많은 청년이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바쳐 4명의 혁명동지를 구원하고 희생되였다.

그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공장에서 일한 기간은 길지 않지만 그 나날에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 당의 참된 당원, 당세포비서는 어떤 사람인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여기도 나의 전호이다

김철훈동무가 동림식료공장에 배치된것은 2년전 2월이였다.

그때 공장의 일군들은 일터를 돌아보고 자기가 일할 곳을 정하겠다는 김철훈동무의 말을 쾌히 승낙하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본 김철훈동무는 장작업반의 원료투입공으로 일하겠다고 일군들에게 말하였다.

일군들은 놀랐다. 그리고 그를 다시한번 쳐다보았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이기때문이였다.

김철훈동무의 가슴속에는 용암처럼 끓고있는것이 있었다.

탄광이나 광산, 대건설전투장에는 뛰여들지 못하더라도 공장에서야 왜 어렵고 힘든 직종을 택하지 못하겠는가, 여기도 사회주의를 지키는 나의 전호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되여 그는 장작업반의 원료투입공이 되였다.

어제날의 총대병사의 자세로 맡은 일을 억척스레 해나가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참된 체현자를 보았다.

그의 이런 일본새는 두해전 봄 마성리일대의 빈땅을 원료기지로 개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그때로 말하면 그가 공장에 들어온지 한달이 되나마나한 때였다.

엉켜붙은 갈뿌리들을 들춰내고 감탕을 파헤치면서 물길을 째고 두둑을 쌓아가는 30여정보의 원료기지개간전투가 얼마나 힘겨웠던지 많은 사람들이 공사기간 교대를 하거나 며칠씩 휴가를 받군 하였다.

하지만 김철훈동무는 60여일이나 되는 공사기간 교대도 없이 휴가도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일을 직심스럽게 하여 종업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지난해 7월 도적으로 진행되는 태천군버섯공장건설에 동원되게 되여있던 한 로동자가 몸이 불편하여 동원되지 못하게 되자 그를 대신하여 건설장에 달려나간 사람도 김철훈동무였다.

그는 휘틀조립을 책임지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렸다. 공사의 나날 뜻밖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그는 장례를 치르고는 다시 건설장으로 달려나왔다. 그때 공장의 일군들은 교대를 해주려고 하였지만 김철훈동무는 공사를 마감까지 성과적으로 끝내고야 공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투신력은 군당학교에 다니는 기간에 동원되였던 큰물피해복구전투에서도 발현되였다.

두해전 8월 장마비로 군소재지의 참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주요도로의 콩크리트다리가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조성되였다.

이때 군당학교학생들이 이 다리를 큰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투에 동원되였는데 당시 이 학교에 다니던 김철훈동무도 여기에 참가하였다.

사품치는 강물에 뛰여든 학생들은 강바닥으로 굴러내려온 돌들을 들어내여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뚝을 쌓아나갔다. 큰돌들이 물살에 굴러내려오면서 학생들의 다리를 사정없이 때리군 하여 매우 위험하였다. 몇몇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게 되자 깊은 곳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말라고 교원들이 만류하였지만 김철훈동무는 주저없이 뛰여들어 큰돌들을 꺼내오군 하였다. 이 과정에 그의 다리는 여러군데나 찢기여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물속에서 전투를 벌렸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군당학교때 김철훈동무의 담임교원이였던 리명철동무는 말하였다.

《제가 숱한 학생들을 맡아 교육하였지만 말이 적고 일에서는 한몸을 내대는 이런 동무를 처음 보았습니다. 지금도 사품치는 물속에서 마지막까지 돌을 건져내며 전투를 벌리던 김철훈동무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군 합니다.》

창고장 최경진동무는 창고에 원료들이 들어오면 남먼저 달려와 50kg이나 되는 원료마대를 두개씩 지고 나르던 김철훈동무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장작업반 반장 장명일동무는 언제나 힘든 일에 뛰여들어 일자리를 푹푹 내는 김철훈동무를 작업반원들은 우리 세포비서라고 정답게 부르며 따랐다고, 그래서 공장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잘 몰라도 장작업반 세포비서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통하였다고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김철훈동무는 지난 7월 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재가 부족하다는것을 알고는 어머니없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그전에 부모들이 아들의 새살림을 위해 마련해놓았던 물자를 아낌없이 내놓아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크게 감동시키였다.

이렇듯 김철훈동무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뛰여들어 맡은 일을 잘하면서 공장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였기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를 사회주의수호전의 앞장에서 달려온 우리 당의 참된 제대군인당원으로, 당세포비서로 그리도 잊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동지는 곧 제2의 나

두달정도 당세포비서로 사업하였을 때인 지난해 1월 김철훈동무는 조선로동당 제4차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결론을 격정속에 받아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자자구구 새기며 김철훈동무는 당세포비서로서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갈 결의를 다지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대로 동지들을 제2의 나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것을 바치리라.)

그의 이런 결심은 당세포비서로 사업하는 나날에 실천으로 구현되였다.

지난해 여름 공장의 원료기지에 김매러 나갔던 종업원들은 뜻밖의 정황을 목격하게 되였다.

원료기지옆으로 흐르는 청강의 물이 장마철이여서 몹시 불어났는데 자전거를 메고 강물을 건너가던 한 사람이 그만 사품치는 깊은 물속에 빠져 떠내려가고있었던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물속에 뛰여들어 사품치는 물결을 헤가르며 물에 빠진 사람을 향해 헤염쳐가는 사람이 있었다. 김철훈동무였다.

그는 희생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도 구원하고 떠내려가는 자전거도 건져내였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공장의 종업원들은 물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김철훈동무를 칭찬하였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였는가고 묻는 사람들에게 김철훈동무는 흔연히 말하였다.

《그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한식솔이 아닙니까.》

김철훈동무는 바로 이런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이였다.

지난 8월 작업반의 리정철동무가 고열로 출근하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된 김철훈동무는 멀리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병치료에 쓰려고 마련해두었던 꿀과 치료에 좋다는 보약과 입맛을 돋구어줄 여러가지 식료품들이 들려져있었다.

홀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를 위해 먼길을 달려온 당세포비서의 진정에 환자는 감동을 금치 못하였으며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참으로 동지를 위해 바친 김철훈동무의 진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다.

지난 9월 27일이였다.

그날 김철훈동무는 처녀의 집에 선을 보러 가게 되여있었다. 아침일찍 출근한 그는 외출복과 신발을 깨끗이 빨아널었다. 홀아버지에게 빨래같은것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늘 빨아입군 하는 그였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부엌일을 맡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온 아버지를 기쁘게 해줄수 있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그는 하루작업을 흥에 겨워 해제끼였다.

하루일을 끝내고 퇴근길에 오르려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굳어졌다. 물엿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는 현장에서 지배인을 비롯한 로동자들이 무거운 응축탕크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김철훈동무는 지체없이 탕크를 옮기는 작업에 뛰여들었다.

바줄을 응축탕크에 매고 그것을 눕혀 옮기는 작업에 여념이 없던 지배인을 비롯한 4명의 성원들은 자기들의 뒤에 서있던 높이 3m, 직경 1.3m나 되는 1.2t짜리 당화탕크가 넘어지는것을 볼수 없었다.

이것을 발견한것은 김철훈동무였다. 소리를 칠 사이도 없었다.

김철훈동무는 몸을 날려 있는 힘을 다하여 4명의 성원들을 밀쳐냈다.

쓰러졌던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당화탕크가 넘어지면서 김철훈동무의 몸을 덮어버린것이 아닌가.

지배인과 로동자들은 순간에 벌어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온 공장종업원들이 달려와 애타게 그를 찾고 또 찾았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이렇게 김철훈동무는 지배인과 리정철, 윤일남, 김금혁동무들을 구원하고 영웅적으로 희생되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지배인 조강건동무는 말하였다.

《그의 희생정신은 순간의 충동에 의해 발휘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평시에 동지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며 집단과 동지들을 위해, 공장을 위해 헌신해왔기에 위기일발의 순간에 서슴없이 자기 한몸을 내대여 동지들을 구원할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철훈동무는 이렇게 동지들의 곁을 떠났다.

그러나 그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우리가 김철훈동무에 대한 취재를 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의 종업원들은 너도나도 찾아와 그에 대한 감동깊은 사실들을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였다.

김철훈동무의 공장생활년한, 당세포비서사업년한은 비록 짧았지만 종업원들에게 남긴 그의 인상은 너무도 컸던것이다.

김철훈동무는 자기의 영웅적희생으로 우리 당의 당세포비서는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만사람에게 보여주었다.

김철훈동무와 같이 집단과 동지를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내대는 이런 당초급일군들이 있어 우리 당, 조선로동당이 그처럼 강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신 우리의 일심단결은 그처럼 강위력하고 억센것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전승세대의 넋은 어떻게 계승되는가

회창군 구룡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쟁로병들을 아끼고 존경하며 잘 돌봐주어 그들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변함없이 당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전승절이였다. 많은 토끼곰을 마련하여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준 회창군 구룡리당일군들이 제5작업반 마을에 사는 김룡훈전쟁로병을 찾아간것은 저녁무렵이였다.

닭곰, 토끼곰을 비롯한 보양식품들과 함께 기관지천식치료에 좋다는 약재를 내놓는 리당비서의 손을 부여잡고 로병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이 약재를 마련하느라 리당비서가 어제밤을 저 축산반골짜기 동굴에서 꼬박 새웠다는 소릴 들었수다. 이 늙은이가 뭐라고…》

로병의 손을 꼭 잡아주며 리당비서 김철동무는 말하였다. 조국을 위해 피흘려 싸운 전쟁로병들을 존경하며 내세우는것은 우리 세대의 응당한 도리이고 당의 뜻이라고.

그의 말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며 여생을 더욱 보람있게 수놓아갈 마음속결의를 가다듬던 로병의 얼굴에 문득 자책의 빛이 어리였다. 웃방에서 내려올념을 못하는 아들을 띄여본것이였다. 그무렵 대중의 신망을 잃고 작업반초급일군의 직무에서 해임된 아들이였다.

《로병으로서 자식교양도 누구보다 잘해야 할텐데 볼 낯이 없수다.》

그 말이 리당비서의 가슴을 찔렀다.

(전쟁로병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보아주는것으로 만족한 내가 무슨 당일군인가. 후대들이 그들의 넋을 꿋꿋이 이어가도록 이끌어주는것이 바로 당일군인 나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이날의 일을 계기로 리당일군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우리 당의 전승업적에 대한 교양과 함께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조국결사수호정신을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 해마다 전승절을 계기로 진행한 작업반별전시가요합창경연…

전쟁로병들의 전투담을 들으며, 전시가요를 부르며 농장원들은 전승세대의 고결한 넋과 정신을 가슴후덥게 체득하였다. 그들처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몸바칠 각오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승세대의 넋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다고는 볼수 없었다.

리당일군들은 전쟁로병의 자식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각별한 품을 들이였다.

어느날 리당위원회일군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심각하게 비판한 리당비서는 김룡훈전쟁로병의 아들과의 사업을 심화시켜나갈 결심을 굳히였다.

그날부터 리소재지에서 5리가 되는 로병의 집을 거치는것이 리당비서의 고정퇴근로정으로 되였다. 로병의 아들이 자그마한 성과라도 거두면 제일처럼 기뻐하면서 칭찬해주려,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보다 가슴아파하며 고쳐주려 밤길을 걸었다. 때로는 타일러주고 때로는 아픈 매도 들었다.

《전승세대에 새 세대가 드리는 가장 큰 경의는 무엇인가. 고귀한 넋과 정신을 계승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한몫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길이 아들로서 아버지앞에, 로병들앞에 떳떳이 나서는 길이다.…》

바쁜 속에서도 매일같이 밤길을 걷는 리당비서의 진정이 김남철동무를 울리였다. 그는 점차 달라졌다. 나중에는 실력과 책임성에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실농군으로 성장하였다. 전승세대의 고귀한 넋을 참되게 이어가는 그를 농장원들은 분조장으로 선출하였다. 분조는 농장적으로 앞선 분조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그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대렬에 들어섰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먼저 축하해준 사람들도 리당일군들이였다.

미제를 타승하고 영웅조선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친 전승세대의 넋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는것은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오늘의 당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이것을 명심하고 당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의 사업, 사상감정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혁신적으로 전개하는 회창군 구룡리당위원회 일군들의 모습은 참으로 돋보인다.

본사기자 김향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는 조국의 장한 아들들

평양시에 살고있는 영예군인들인 리춘복, 안리균동무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공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의무와 권리가 부여되여있다. 의무와 권리중에서 어느것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가에 따라 조국과 인민앞에 비쳐지는 모습은 서로 다르다.

평양시 선교구역 등메3동 17인민반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리춘복, 사동구역 송신3동 66인민반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안리균동무들이 걸어온 인생길은 말해주고 있다.

권리보다 의무에 더 충실한 사람이 참말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값높은 삶을 빛내이는 사람이다.

병사시절의 그 모습으로

선교구역 등메3동 17인민반에서 사는 영예군인 리춘복동무의 집에 가면 두툼한 책 한권이 있다.

거기에는 가시어머니 박정애로인이 처녀시절부터 수십년간 진행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내용들과 함께 리춘복동무가 새겨온 충정의 나날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여있다.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위훈의 자욱을 새기고 영예군인의 몸이 되여 고향에 돌아온 리춘복동무였지만 그는 병사의 행군길을 멈추지 않으리라 마음다지였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지성을 다하는것이였다. 그는 불편한 몸이지만 안해가 주변구역을 비롯한 여러곳을 찾아다니며 구입한 꽃씨와 잔디씨를 정성껏 선별하고 비자루와 눈가래를 비롯한 관리도구들도 하나하나 품들여 마련하였으며 그것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군 하였다.

그러던 몇해전 봄 어느날 리춘복동무는 수도로부터 수백리 떨어진 곳에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모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무래도 내 손으로 직접 떠옮겨와야 마음이 편할것 같구만.》

거듭 말리는 안해를 마주보는 리춘복동무의 얼굴에는 여느때없이 절절한 빛이 어려있었다. 그렇게 떠난 로상에서 뜻하지 않게 병이 도졌을 때에도 리춘복동무는 그 과일나무모들을 가슴에 꼭 그러안고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3년전 뜻밖에 민족의 대국상을 당했을 때 리춘복동무의 가슴터지는듯 한 아픔은 누구보다 더 컸다. 영예군인들을 나라의 장한 아들로 내세우시며 생활의 걸음걸음 따뜻이 보살펴주신 어버이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을 잘 받들어모시지 못한 죄책감으로 몇밤을 뜬눈으로 새운 그는 온 가족과 함께 충정의 결의를 다지고 그것을 실천해나갔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온넋을 기울였다.

지난 10월 17일에도 리춘복동무와 그의 안해 김연화동무는 가정에서 정성껏 마련한 붉은기와 꽃씨, 관리도구들을 안고 460번째로 금수산태양궁전수목원을 찾았다. 자나깨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리춘복동무의 순결한 마음은 지난 10여년간 그의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꽃씨와 14만 9천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 10여만점의 관리도구들에도 그리고 수많은 원호물자와 지원물자에도 력력히 어리여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창조하던 그 나날처럼 충정으로 삶을 빛내이는 리춘복동무,

그는 오늘도 병사시절의 그 모습으로 언제나 정보로 걷고 있다.

신념으로 이어가는 조국수호의 길

지난 7월말 사동구역 송신고급중학교에서는 송신3동 66인민반에서 사는 영예군인 안리균동무와 졸업반학생들과의 상봉모임이 있었다.

…

이 한몸 불속에 재가 된다 해도 병사의 임무를 버릴수 없어라 병사의 행군을 멈출수 없어라

자작시 《나도 투사들처럼 살리라》로 상봉모임을 마감짓는 안리균동무의 모습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불같은 맹세가 세차게 타번졌다.

지난 31년간 안리균동무는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90여만명을 대상으로 1400여차례의 상봉모임을 가지고 다양한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다가 군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게 두눈을 잃게 되였을 때 안리균동무의 가슴은 몹시 아팠다. 조국수호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였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것이다. 하지만 그의 귀전에는 비록 두눈은 잃었지만 나에게는 심장이 남아있지 않는가고 하면서 손더듬으로 쇠줄을 자르고 작탄을 조립한 항일혁명투사 손원금동지와 원쑤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던 최희숙동지의 신념의 목소리가 쟁쟁히 들리는듯 하였다.

차렷! 중좌 안리균! 앞으로 갓!

스스로 심장의 명령을 내린 그는 마음을 다잡고 불사신처럼 일어났다. 인민군대 정치일군이였던 안리균동무는 새 세대들을 강의한 조국수호정신의 소유자들로 준비시키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것을 결심하고 이때부터 신념의 길을 걷고걸었다.

안해가 읽어주는 신문자료들과 방송을 들으면서 머리속에 자료정리를 해두었다가 글줄이 완성되면 안해에게 불러주면서 해설자료들을 하나하나 완성한 안리균동무, 그가 이렇게 마련한 각종 교양자료들은 무려 백수십건에 달한다.

어느덧 날과 달이 흘러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지만 그는 군사복무의 나날처럼 순간의 답보나 후퇴를 몰랐다. 그가 지닌 강의한 의지는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올리였던 편지와 글작품집 《심장의 눈으로 봅니다》에도 어려있고 그가 걸은 농장길과 학교길에도 뚜렷이 새겨져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리던 몇해전 어느날, 그날도 대학생들과 약속한 상봉모임을 위해 길떠날 차비를 하는 그에게 안해인 리향실동무가 말하였다.

《옥주아버지, 다음날로 미루는것이 어때요?》

《아니요, 전사는 명령앞에서 흥정을 모르오.》

그는 그날 안해의 부축을 받으며 대학으로 떠났다. 그가 지금까지 시안의 여러곳을 찾아 걸은 길은 무려 수천리나 된다.

언제나 조국수호의 의지로 심장을 불태워온 안리균동무였기에 그는 두 아들도 대를 이어 혁명의 군복을 입히였으며 맏딸도 군관에게 시집을 보냈다.

안리균동무는 원군사업도 줄기차게 벌려왔다. 손더듬으로 장갑과 모표닦개를 비롯한 원호물자를 밤새워 마련하였다. 그렇게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면서 그는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킬것을 당부하군 하였다.

(숨이 지는 순간까지 언제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로 살리라.)

그는 오늘도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신념의 길, 조국수호의 길을 가고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삐라살포망동이 강행되는 경우 북남관계는 회복불능의 파국에 처하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 25일 또다시 삐라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악을 쓰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3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76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으로 초래된 엄중한 후과에 대한 우려와 그것을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세차게 쏟아져나오고있다.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은 이대로 가다가는 전쟁이 터질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쓰레기들의 삐라살포망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반공화국삐라살포를 묵인조장하는 괴뢰당국에 엄중히 항의해나서고있다.

특히 경기도 련천군을 비롯한 현지주민들은 보수단체의 삐라살포가 험악한 사태를 빚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그것을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나서서 삐라살포를 저지시키겠다는 단호한 립장을 표시하고있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삐라살포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자극제》라고 하면서 당국이 나서서 저지시킬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삐라살포가 남북관계개선에 저촉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올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은 삐라살포놀음에 더욱더 광분하고있다.

이미 인간의 리성을 상실한 추물들은 입에 게거품을 물고 누가 압을 가한다고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25일 또다시 삐라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악을 쓰는가 하면 미국과 극우보수세력들은 너절한 인간추물들의 망동을 극구 비호두둔하며 부추기고있다.

남조선당국 역시 《막을수 있는 법적명분이 없다.》느니, 《자률성》이니,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며 추악한 인간병신짝들의 광란을 사실상 조장하고있다.

《법적명분》으로 말하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삐라살포를 막을수 있다는것이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 각계의 일치한 주장이며 실지로 지난 시기 막은적도 있다는것이다.

그 무슨 《민간단체의 자률성》이니,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는것도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엊그제 괴뢰패당은 집권자를 풍자하는 만화삐라를 제작하여 서울시내 한복판에 대량 살포하였다고 하여 만화가를 비롯한 여러명을 잡아가두었으며 이어 청와대근처에서 당국을 비난하는 삐라풍선을 날리려 하는데 대해서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저들에게 거슬리는 삐라를 뿌리는데 대해서는 민간인이건 누구이건 그처럼 폭압경찰까지 내몰아 사정없이 가로막는 남조선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놀음에 대해서는 못본척 하면서 비호, 조장, 방임하는것은 자가당착으로서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최근의 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삐라살포는 북남관계의 파국은 물론 전쟁까지도 불러올수 있는 극히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아무리 첨예한 군사적열점지역과 분쟁나라들이라고 할지라도 괴뢰들처럼 《삐라전쟁》을 위험천만하게 벌리는데는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전쟁행위로 인정되는 삐라살포망동에 단호한 군사적대응조치가 취해지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한줌도 못되는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의 망동때문에 엄청난 화를 입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를 저지시키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삐라살포를 막는가 묵인하는가 하는것은 대화냐 대결이냐, 북남관계개선이냐 파국이냐 하는 남조선당국의 립장과 태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된다.

만일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삐라살포망동이 강행된다면 북남관계가 회복불능의 파국에 처하게 될것은 물론 사태는 험악하게 번져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본사기자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23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와 조선팔레스티나친선협회 위원장인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박근광, 심국룡, 김진범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팔레스티나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영광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 인민사이에 존재하는 력사적인 친선과 련대성의 뉴대가 김정은원수각하의 관심과 보살피심속에 더욱 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진보와 번영,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강석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의 벗들이 해마다 당창건기념일을 우리 인민과 함께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표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선로동당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오늘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굳건히 고수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설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마흐무드 아빠스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과 팔레스티나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정세파국의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우리의 통이 큰 결단과 아량,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로 이룩된 북남관계개선의 극적인 사태발전은 온 겨레를 흥분시키였다. 그런데 모처럼 마련되였던 그 좋은 분위기가 얼마 못 가 파탄직전에 이르렀다. 무엇때문인가.

다름아닌 겉과 속이 판이하고 앞뒤가 다르게 행동하는 남조선당국의 그릇된 처사때문이다.

우리 총정치국장일행의 인천방문시 남측관계자들은 북남이 서로 자주 오가면서 오솔길을 대통로로 만들어 북남관계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 긍정과 사의를 표시하면서 자기들도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분위기는 자못 화기애애하였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도 희망의 빛이 비끼였었다.

그런데 괴뢰패당은 돌아앉자마자 극히 배신적으로 놀아댔다. 서해열점수역과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무분별한 총포사격,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강행한 삐라살포행위, 서유럽행각과정에 한 남조선집권자의 망발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사실상 북과 남이 서로 만나 관계개선을 확약한 이후 불과 보름 남짓한 사이에 남조선당국의 반통일대결망동은 그 어느때보다 우심하였다.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괴뢰패당의 비렬하고 추악한 망동은 지어먹은 마음 사흘 못 간다는 속담을 상기시켜주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곱씹던 약속이라는것들이 전부 위선이고 기만술책이라는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수 없게 되였다.

오늘의 사태는 《유신》독재광이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의 발표직후 《이 몇장의 종이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수 없고 또 믿을수도 없다.》고 하면서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의 간판밑에 《총력안보》, 《전쟁태세》확립 등 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리던 때를 방불케 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북남수뇌분들에 의해 마련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남조선당국의 이런 신의없는 합의파괴책동에 의해 그 리행이 중단되였다.

괴뢰패당은 쩍하면 그 누구의 《책임적인 행동》을 운운하군 한다. 그런데 정작 저들은 철부지아이들의 약속도 아닌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엄숙한 약속도 이처럼 손바닥뒤집듯 서슴없이 줴버리고있다. 그러고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제편에서 《도발》이니, 《량면전술》이니 하며 우리를 걸고드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결국 이중성을 보여주고있는것은 괴뢰당국자들자신이다. 제 얼굴 흉한줄 모르고 거울만 나무란다는 식으로 세상사람들앞에 비쳐진 저들의 추악한 대결본색은 생각지도 않고 동족의 진정과 성의를 함부로 모독하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파괴하는 괴뢰패당의 파렴치한 처사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입만 벌리면 외워대는 《신뢰》타령의 기만성도 이번에 더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

신뢰라는것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이 결코 아니다. 상대방의 진정을 참을수 없는 도발로 모독하며 짓밟는 천하무뢰한들에게 《신뢰》타령은 가당치도 않은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뻔뻔스러운 《신뢰》타령으로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는 장난질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날로 험악하게 번져가는 북남관계의 현 사태의 배후에는 두말할것없이 미국과 남조선의 극우보수패거리들이 있다.

지금 미국과 괴뢰극우보수깡패들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정세를 극단적인 파국상태에로 되돌려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최근에 있은 반공화국삐라살포와 총포사격 등은 다 그들의 배후조종과 부추김에 의한것이다.

실로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는 북과 남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것은 문제해결의 마당이 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과 대립만을 고조시키게 될것이다. 며칠전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고만 북남사이의 긴급접촉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한줌도 못되는 민족의 원쑤, 매국반역의 무리때문에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희망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현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북남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가 이룩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대결의 흉심을 버리지 않고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한 모든것이 무용지물이 되고만다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력대 대결《정권》들때문에 모진 우여곡절을 겪은 북남관계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기도 하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건대 언제까지 민족의 운명문제, 북남관계문제를 대결의 롱락물로 삼겠는가.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동족적대관념을 그렇게도 버리지 못하겠는가.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남관계를 대결정책의 인질로 삼으면서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계속 도전한다면 초래될것은 전쟁밖에 없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광증으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리성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상대방을 자극하며 정세파국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언행부터 삼가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남관계의 현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살리느냐 아니면 다시금 돌이킬수 없는 극단에로 치닫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간 괴뢰패당은 그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것이다.

허 영 민

유엔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오늘은 유엔의 날이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참화가 인류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이다.

1945년 6월 26일 유엔헌장이 채택되고 그해 10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유엔은 자기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유엔의 사명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행위와 투쟁하며 평등권 및 자결권원칙의 존중에 기초한 국가들사이의 우호와 협조의 발전을 보장하고 경제, 사회, 문화 및 인도주의적인 국제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다.

유엔이 지니고있는 사명과 임무로부터 유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기대는 높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유엔은 자기의 활동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유엔과 유엔헌장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제멋대로 간섭하고 전쟁과 략탈을 일삼고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유엔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보장되여야 할 필요성은 오늘날 더욱 절실히 제기되고있다. 유엔의 기구체계와 활동에서 정의와 공정성, 평등이 보장되도록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유엔헌장에 대한 도전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가는것이 필요하다.

유엔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유엔총회의 권능을 강화하는것이다.

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이 유엔총회가 유엔의 활동전반을 주관하는것은 응당하며 특히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도 최종검토할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유엔성원국전체를 망라하고있는 유엔총회는 그 구성과 성격, 사명을 놓고볼 때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할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기구이다. 반면에 몇몇 나라들로 구성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결코 국제사회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수 없다. 더우기 특정한 국가가 자기의 전략적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안전보장리사회를 악용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리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심히 떨어지고있다.

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유엔의 민주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지구상에서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전쟁이 영원히 끝장나기를 바라는 시대적흐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세계는 과연 어떠한가. 침략과 전쟁을 기본생존방식으로 하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간섭과 분렬리간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전례없는 류혈참극과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지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유엔헌장에 새겨져있는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미국의 세계제패정책을 합리화, 합법화해주는 《결의》들이 날치기로 채택되고있다.

유엔개혁의 핵심사항인 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은 활동에서 책임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성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유엔성원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명 성

급속히 확대되는 에볼라비루스감염과 그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에볼라비루스의 발생경위와 증상

에볼라비루스는 일종의 출혈성열병을 일으키는 비루스이다.

1976년 수단의 서북지역과 민주꽁고의 에볼라강류역에서 사는 주민들 300명이 고열과 출혈로 인해 동시에 목숨을 잃었다. 그후 사람들은 이 비루스를 에볼라강류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에볼라비루스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몇해후인 1979년 수단에서 에볼라비루스가 또다시 발생하여 400명이 목숨을 잃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민주꽁고에서는 잘 소독하지 않은 주사기를 리용한 결과 300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 90%가 목숨을 잃었다.

이 비루스는 당시 아프리카의 중부와 동부지역 나라들에 퍼져 적지 않은 생명을 앗아간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비루스가 서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발병이래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전파되여 수많은 사망자와 감염자를 기록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 원인은 발병지역이 그전에는 주민이 적은 산간지대였다면 지금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이라는데 있다.

오랜 연구끝에 학자들은 이 병의 병원체가 실모양으로 생긴 휠로비루스라는것을 확증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이 병이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 원숭이를 날것으로 먹은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인체에 전염되였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며 또 어떤 학자들은 박쥐나 부덕쥐, 곤충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견해들도 내놓았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비루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혈액이나 체액, 장기조직을 통해 쉽게 전파되고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되면 대체로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그후 구토와 설사, 출혈을 하면서 사망하게 된다.

에볼라비루스의 잠복기는 2~21일이다. 에볼라비루스가 몸안에 침입하면 1단계에서 심한 머리아픔과 고열, 근육동통이 나타나고 2단계에서는 신체장기들에서 응고된 혈액덩어리가 생기고 전신동통, 구토, 설사가 지속되며 3단계에서는 면역계통과 모세혈관이 전면파괴되여 눈, 코, 입, 귀를 통해 출혈하며 발병후 8~17일사이에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초기발생때에는 사망률이 30%정도였는데 사람들사이에 전염되면서부터는 50%정도로 증가되였으며 현재 이 비루스에 의한 사망률은 90%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세계여론들이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피해지역 상황을 전쟁터에 비유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병의 진단은 피부변화와 출혈 등 특징적인 증상과 휠로비루스분리 및 동정, RT—PCR검사로 할수 있다고 한다. 현재 왁찐을 비롯한 치료약들이 개발중에 있지만 효과성이 검증되고 법적으로 승인된 약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 미국인 2명이 실험단계에서 사용하고있는 치료약 《지맵》을 쓰고 회복되였다고 한다.

또한 얼마전에 프랑스인녀성이 어느 한 나라에서 개발한 치료약 《파비피라비르》를 쓰고 완쾌되였다고 한다. 이 약도 치료약으로서는 아직 공식 승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일부 나라들에서 왁찐을 개발하는중에 있으며 적어도 1년이 지나서야 치료에 널리 쓰일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림 원

사망자수 계속 증가

에볼라비루스가 세계 각지로 급속히 퍼져가고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22일 세계적으로 에볼라비루스감염자수는 9 936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4 877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서아프리카의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기네이다. 시에라레온에서는 하루동안에만도 120여명이 죽고 수십명이 감염되였다고 한다. 민주꽁고에서도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어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9월 7일까지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기네를 비롯한 서아프리카나라들에서 이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수가 4 780여명으로 늘어나고 그중 2 4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불과 40일나마 되는 사이에 에볼라비루스감염자가 5 000명을 훨씬 넘어서고 2 500명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사망하였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에볼라비루스가 얼마나 위험한것인가를 보여주는 수자이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치료약과 예방약이 개발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이 비루스가 서아프리카지역을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세계 여러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있다는데 있다.

비루스에 전염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다 서아프리카에 갔다온 사람들이거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이다.

얼마전 미국에서는 리베리아에서 온 남성이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어 이 환자를 담당하였던 간호원도 이 비루스에 전염된것으로 확인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 전국적인 에볼라비루스감염자수는 5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도이췰란드보건당국이 밝힌데 의하면 치료를 받던 유엔직원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마께도니아에 거주하고있던 영국사람도 이 비루스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브라질, 쓰르비아, 노르웨이 등에서도 에볼라비루스전염병증세가 나타난 사람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였다. 에스빠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마드리드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자를 담당하였던 간호원에게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전하였다.

기네, 리베리아, 나이제리아, 시에라레온에서 240여명의 의료일군들이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되였고 120여명이 사망하였다. 에볼라비루스감염자들을 치료하던 의사와 간호원 등 의료일군들속에서까지 비루스감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있는것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케 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밝힌데 의하면 이달말에 가서 영국과 프랑스에서 에볼라비루스전파위험이 50%로부터 75%까지 올라갈것이라고 한다.

국제적우려를 자아내는 에볼라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은 매우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김 수 진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에볼라피해방지노력

지역적협조 호소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느코사자나 들라미니 주마가 16일 기자회견에서 에볼라방지투쟁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이 협조를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에볼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현시기 에볼라방지는 아프리카동맹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라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동맹성원국들이 피해지역 나라들의 치료쎈터와 병원건설을 지원하며 이 나라들에 더 많은 의료전문가들을 파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는것이 급선무이다

건강하여 오래 살려는것은 누구나 품고있는 소망이다.

그러나 현실은 소원대로 되지 않고있다. 심각한 식량위기, 이상기후현상의 후과로 빈번히 들이닥치는 자연재해들,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끊기지 않고있는 내전과 테로의 악순환 등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당하고있다.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 의한 피해도 전쟁과 분쟁, 충돌과 대결로 인한 피해보다 결코 작지 않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비루스가 수많은 사망자를 내며 급격히 전파되고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지난 3월말 서아프리카의 기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에볼라비루스는 두주일도 못되는 사이에 80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시에라레온과 리베리아에서도 거의 동시에 에볼라비루스감염자와 그에 의한 사망자가 나타났다. 이 병은 나이제리아,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나라들을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로 파급되고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 사람의 수는 만명을 가까이하고 사망자수는 근 5000명에 달하고있다.

이 심각한 사태는 인류가 죽음의 전염병과의 투쟁에 더 큰 힘을 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각종 전염병과의 투쟁을 완강히 벌리는것은 지난날 사람들이 한갖 환상으로만 그려왔던 간절한 소원인 병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살려는 념원을 실현하는 길이다. 또한 그것은 안정되고 부흥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시기 세계적으로 각종 전염병으로 하여 사람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죽음의 병으로 알려진 에이즈를 놓고보자.

지난 세기 처음으로 에이즈가 발견된이래 이 병은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으며 1988년에는 세계적으로 환자수가 13만명이였던것이 1994년에는 에이즈보균자가 1 500만명, 환자수는 300만명계선을 넘어섰다.

그후 에이즈에 대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벌어져 진단방법은 해결되였으나 감염예방, 치료문제는 의연히 해결되지 못하여 환자수는 오늘도 계속 늘어나 심각한 국제적문제로 남아있다.

지난 시기 조류독감으로도 인류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몇년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3년 12월 조류독감이 재발한이래 15개 나라에서 389명이 H5N1형조류독감비루스에 감염되였으며 그들중 적어도 246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많은 전염병들이 나돌았었다.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화국정부는 전염병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방의학을 발전시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지금 일부 나라에서는 경제사업만 중시하고 보건사업에는 관심을 적게 돌리고있으며 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전적으로 남이 도와주기만을 기대하는 나라들도 있다.

바로 이때문에 아직도 각종 악성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고있다.

현재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피해전망은 예측하기 어렵다.

어느 한 나라의 질병통제 및 예방쎈터는 에볼라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5년 1월에는 서아프리카에서의 에볼라비루스감염자가 50만명 지어 140만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비루스가 급격히 확대되게 된데는 주민이 적은 산간지대에서 발생하였던 지난 시기와 달리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기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해당 보건기구들이 전통적인 통제방법인 국경과 보건체계를 통하여 에볼라비루스전파를 제대로 저지시키지 못한데 있다고 보고있다.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피해상황이 하나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세계여론들의 보도는 그만큼 이 전염병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인간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주는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그로 인한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에볼라비루스와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대중보도수단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적으로 에볼라비루스감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그를 막기 위한 위생선전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는것이다.

위생선전사업을 강화하면 전염병이 감염되는 길을 끊어버릴수 있다. 주민들자신이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도록 하며 그들자체가 병의 예방에서 선전자, 집행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염경로가 없이는 전염병의 돌림과정이 있을수 없다.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해서는 전염경로로 되는 모든 공간을 없애야 한다.

병을 퍼뜨리는 근원을 없애기 위한 대책, 전염경로를 끊어버리기 위한 대책,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자면 주민들이 위생지식을 잘 알고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게 노력하여야 하며 위생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위생방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염병으로 의심될 때에는 제때에 보건부문에 통보하며 전염병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곧 격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로부터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염병을 신속정확히 진단하는것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로동능력을 빨리 회복시키며 환자의 생명을 구원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하다.

전염병의 진단에서 중요한것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것이다. 락후한 보건위생상태를 개선하고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조건이 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분야에서 나라들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보건분야에서 나라들사이의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것은 세계적으로 급격히 전파되는 전염병을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온갖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서 인민들을 구원하는것은 새 사회건설과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문제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에볼라비루스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김 철 룡

죽음의 병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에볼라비루스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고있다. 그에 대처하여 전세계가 에볼라비루스감염을 막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고있다.

국제기구들과 지역공동체들의 노력이 적극화되고있다.

지난 9월 에볼라비루스감염방지에 관한 동아프리카지역 상급회의가 케니아의 나이로비에서 진행되였다.

지역의 5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한 회의에서는 에볼라비루스감염방지와 관련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참가자들은 비루스가 발생하면 즉시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비루스감염방지를 위한 공동전략을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공동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이보다 앞서 에볼라비루스와 관련하여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서아프리카 11개국 보건상들이 모여 에볼라비루스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협력방안을 론의하였다.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기구는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들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루스감염방지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세계적으로 에볼라비루스와 관련한 정보교류와 통제체계를 강화할것을 강조하였다.

이 병이 급속히 퍼지고있는 기네, 리베리아, 시에라레온의 대통령들이 에볼라비루스감염방지를 위한 수뇌자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지역나라들에서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인명피해가 확대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그 감염을 시급히 막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병발생지역들을 차단하는 등 비루스감염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콤뮤니케도 발표하였다.

기네에서 최근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힘을 넣고있다. 국경지역들에 수많은 방역초소가 새로 설립되였으며 려행자들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이 강화되고있다. 앞으로 발병지역들에 더 많은 의료시설들이 꾸려지게 될것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들에서 피해가 계속 확대되는데 맞게 전국적으로 이 병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며 감염자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치료하기 위한 에볼라비루스감염방지깜빠니야를 개시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전문그루빠를 조직하고 에볼라비루스가 더 퍼져나가지 않게 국가가 취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세우고있다.

에볼라비루스감염을 막기 위하여 그 피해를 받고있는 나라들뿐아니라 아직 감염자가 없는 나라들에서도 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방지대책을 세우고있다. 먄마, 마께도니아, 불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최근 에볼라비루스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장과 항구들에서 려행자들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을 진행하고 병원들에서는 있을수 있는 비루스감염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있다.

에볼라비루스감염자들을 제때에 격리시키고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는 한편 이 비루스의 위험성과 감염을 막는 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기 위해 위생선전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그밖의 나라들에서도 정부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내에서 감염자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에 대처할수 있는 긴급구제쎈터들과 전문그루빠들을 설립하고 병원들에서 에볼라비루스의 감염을 막고 그 치료에 도움을 주는 전문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의료일군강습과 예방치료강습도 조직하고있다.

국경지역들과 비행장들에 격리실들을 꾸려놓고 출입국자들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있다.

짐바브웨정부는 에볼라비루스감염방지를 위해 이 전염병이 류포되고있는 나라들에서 오는 려행자들에 대한 위생검역을 강화하며 의심되는 감염자들을 3주일동안 격리시키고 관찰하는 등의 조치들도 취하고있다.

필리핀에서도 최근 에볼라비루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는 이 전염병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해외에서 오는 려행자들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항공려행자들을 통한 감염확대우려가 높아지는것과 관련하여 비행장에서의 방역대책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있다.

또한 에볼라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와는 일체 접촉을 삼가하고 손을 자주 씻을것을 권고하고있다.

에볼라비루스감염을 막기 위한 국제적노력은 이뿐아니라 로씨야와 카나다, 우간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왁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비루스감염을 막기 위해 1억 US$의 자금을 긴급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은 성명을 발표하여 에볼라비루스감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자국령토에서 에볼라비루스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를 치료할수 있는 효과적인 왁찐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경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이 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있다.

무서운 피해를 주며 급속히 확대되고있는 죽음의 병과 맞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많은 나라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김 국 철

기네에서 에볼라환자치료

ㄱ-4116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